

6) 음독후 내원시간은 12시간 이내에 내원한 경우가 12례(82.4%)이었고, 다음이 12~24시간내 4례(7.8%)이었다.

7) 구강 및 인두점막변화는 충혈 및 부종이 있는 중등도가 20례(3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궤양이 동반된 18례(35.3%), 충혈만 있는 10례(19.6%)의 순이었다.

8) 검사소견은 혈액검사소견상 40례(78.4%)에서 백혈구증가를 보였으며, 31례(60.8%)에서 혈구용적비(Hct)증가를 보였다. 뇨검사상 14례(27.5%)에서 Specific gravity가 1.030이상 이었고, 25례(49.0%)에서 간백뇨를 보였으며, 5례(9.8%)에서 당뇨를 보였고, 6례(11.8%)에서 혈뇨를 보였다.

9) 응급처치로는 위세척을 시행한 예가 30례(58.8%)이었고, 3례(5.9%)에서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10) 치료방법으로는 전체 51례중 50례(98.0%)에서 Levin tube를 삽입하였고, 49례(96.1%)에서는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46례(90.2%)에서 제산제 및 Steroid를 사용하였다.

11) 치료후 36례(70.6%)에서는 별다른 합병증없이 유효한 치료결과를 보였고 2례(3.9%)는 입원당시 사망하였으며, 4례(7.8%)에서 식도협착을 보였고, 1례(2.0%)에서는 위유문부협착을 보였다.

12) 합병증은 8례(15.7%)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중 신부전증이 4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폐렴, 상부 위장관출혈 등이었다.

— 10 —

부식성 식도염에 관한 임상적 고찰

연세의대

(지도:김기형)

이원상·정승규·최홍식·김상기·김광문·홍원표

근래 국민 생활이 향상되고 독, 극약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 인식도 개선됨으로써 부식성 약물을 오연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의 발달과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정서 생활의 부조화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하고자 연하하는 경우는 아직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연하하는 부식제의 종류도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공업화로 인하여 다양해지고 있다.

식도 부식증에 관하여는 각종 산성(Pitkin, 1935

Carmody, 1936) 및 알카리성(Tree, 1942, Tucker, 1951) 부식제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협착증에 대해서는 Salzer(1920), Bokey(1924) 등이 조기 확장법을 주장한 이후 Spain(1950)에 의해 Cortison의 투여 효과가 소개되었고 또한 항생제의 동시 투여로 그 치료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방법들에 못지않게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으로 이러한 시도가 최근의 추세라고 하겠다. 이에 저자들은 1971년부터 1981년 3월까지 10년 3개월간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원 가료한 부식성 식도염 환자 96명에 대한 역학적 조사를 시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성별 빈도는 남자와 여자의 비가 1대 1.7이며 연령 분포는 21세에서 30세가 38명(39.6%)으로 가장 많았다.

2) 약물을 먹은 동기는 자살 목적이 80명(83.3%), 사고의 경우는 10세미만이 9명(56.3%)으로 가장 많았다.

3) 약물은 빙초산 41명(41.8%), 가성소다 20명(20.4%), 염산 17명(17.3%)의 순이었으며 연도별 빈도를 볼때 가성소다의 경우는 감소하였으나 산성부식제 특히 빙초산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4) 위세척을 한 경우는 57명(59.4%)으로 대부분이 조기 도착한 경우였다.

5) 대부분에서 Nasogastric tube를 삽입하였으며(83.3%), 삽입하지 않은 16명(16.7%)은 늦게 내원이 10명, 삽입 실패 4명, 기타 2명이었다.

6) 기관절개술이 요구된 경우는 호흡기장애가 있었던 17명(17.7%)이었으며 분비물의 축적이 6명(35.3%), 상기도폐쇄가 11명(64.7%)이었다.

7)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한 11명(11.5%)중 48시간이내가 6명(54.5%)으로 가장 많았다. 조기 식도경 검사 결과; 점막에 중증도의 궤양이 8명(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점막의 종창과 부식 정도가 비교적 경하였던 6명(54.5%)은 입원 가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곧 경구 음식 투여를 시작하였으나 입원 가료가 필요했던 중(重)중의 경우 그 입원 일수는 평균 4주간이었다.

8) 본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22명중 Nasogastric tube를 넣은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으나 최근에는 tube를 삽입하여둔 기간은 대체로 입원 기간과 일치하며 이는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였다.

9) 대부분의 경우에서 Steroid를 투여하였으며 투여하지 않거나 투여가 지연된 경우는 47명(48.9%)으로서 내용별 분류를 보면 (1) 약물의 종류로 인한 경우(산성, 미상) 12명, (2) 경(輕)하다고 인정된 경우 9명, (3) 늦게 내원한 경우 11명, (4) 비적응증(심한 감염, 합병증, 임신등)이 7명, (5) 기타(사망, 기록미비)가 8명이었다.

10) 협착으로 인한 확장 치료(Bougienage)를 요한 경우가 7명, 급식위루술(feeding gastrostomy)을 시행한 경우가 6명, 그 외에 수술적 치료를 요한 경우가 4명이었다.

11) 입원치료중 합병증이 생긴 경우는 27명(28.1%)이었으며 심폐합병증, 심한출혈, 식도 및 위장 천공, 신부전증의 순으로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사망 및 빈사상태에 퇴원이 8명이었다.

12) 식도 협착증이 있었던 경우는 13명(56.5%)이었으며 협착 부위 및 빈도는 (1) 식도의 중간 부위 협착이 5명, (2) 식도의 상부 협착이 3명, (3) 하부 협착이 3명, (4) 전반적인 협착이 1명이었으며, (5) 하인두 및 유문협착이 1명이었다.

— 1 1 —

食道腐蝕症에 對한 臨床의 考察

慶熙醫大

趙軫奎 · 車昌溢 · 趙重生 · 崔春基

食道腐蝕症은 크게 失手로 인한 誤嚥과 自殺手段으로서의 飲毒으로 나눌 수 있는데 誤嚥은 生活水準 및 社會環境의 改善, 法規制의 強化에 힘 입어 減少하였다 하나 아직도 적지 않은 數의 患者가 發生하고 있는 實情이며, 特히 自殺目的에 依한 경우는 人口의 增加, 社會生活의 複雜性 등으로 減少하지 않고 있는 現實이다.

演者들은 1978年 8月부터 1980年 12月까지 慶熙大學校病院 耳鼻咽喉科學教室에서 治驗한 食道腐蝕症 患者中, 發病初期부터 治療終結까지의 大部分의 過程을 觀察할 수 있었던 34名을 對象으로 3個月에서 14個月餘 追跡調査를 하여 아래와 같은 成績을 얻었다.

1) 性別로는 男子 19例, 女子 15例로 1.3 : 1의 比를 보였고, 年齡分布는 21歲에서 29歲사이가 14例(41.2%)로 가장 많았다.

2) 飲毒 後 24時間 以內에 來院한 患者가 18例(52.

9%)로 가장 많았고 2日에서 7日 사이가 13例(38.2%)로 그 다음 順이었다.

3) 發生季節은 봄이 12例(35.3%)로 가장 많았고 가을이 9例(26.5%)로 다음 順이었다.

4) 發生動機는 自殺目的이 27例(79.4%), 誤嚥이 7例(20.6%)였으며 自殺目的은 21歲에서 30歲사이의 男子 5例(14.7%), 女子 6例(17.6%)가 가장 많았고, 誤嚥은 10歲未滿에서 男女 各 2例(5.9%)였다.

5) 腐蝕劑는 醋酸이 23例(6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苛性소다 5例(14.7%), 農藥 2例(5.9%)의 順이었다.

6) 自覺症狀는 嚥下困難이 14例(4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咽頭痛 6例(17.6%)의 順이었다.

7) 入院期間은 1週에서 2週사이가 19例(55.9%)로 가장 많았고 1週以內와 2週에서 3週사이가 各 6例(17.6%)의 順이었고 平均 入院日은 14.8日이었다.

8) 食道 X-線撮影은 3日에서 7日사이에 施行했는데 13例中 第一生理的狹窄部에 狹少所見을 보인 것이 4例(30.7%)로 가장 많았고 正常範圍가 3例(23.1%), 食道上部의 散慢한 狹少所見을 보인 것이 2例(15.4%)의 順이었다.

9) 食道鏡은 31例(91.2%)에서 施行했는데 初回檢査는 2日에서 7日 사이에 實施했으며 이中 食道入口部의 浮腫 및 coating이 9例(29.0%)로 가장 많았고, 正常範圍가 4例(12.9%), 全食道壁의 散慢한 浮腫이 3例(9.7%)의 順이었다.

10) 檢査所見은 血液檢査에서 極甚한 貧血이 1例(2.9%), 白血球增加症이 21例(61.8%), ESR의 增加가 9例(26.5%)에서 觀察되었고 生化學檢査上 尿酸의 急激한 增加가 3例(8.8%)에서 보였으며, 低칼륨血症이 1例(2.9%)에서 보였다. 尿檢査上 10例(29.4%)에서 蛋白尿가 4例(11.8%)에서 血尿가, 3例(8.8%)에서 coca-cola urine이 觀察되었다.

11) 先行疾患을 가진 경우는 7例(20.6%)로, 惡性腫瘍이 3例(42.9%), 糖尿病, 躁鬱病, 結核이 各 1例(14.3%)를 차지하였다.

12) 應急處置로 食道 · 胃洗滌을 施行한 경우가 23例(67.6%)였고 治療期間中 抗生劑를 使用한 경우가 32例(94.1%), steroid를 使用한 것이 30例(88.2%), 부지使用이 5例(14.7%), 血液透折, 食道部分切除術 및 胃瘻術 · 胃廻腸吻合術을 施行한 경우가 各 1例(2.9%)씩이었다.

13) 深刻한 合併症은 9例(26.5%)에서 보였는데 그中 食道狹窄症이 6例(17.6%), 急性腎不全症 1例(2.9%), 縱隔洞氣胸과 肺炎이 併發한 경우와 肺炎이 各 1

(96.1%), steroid and antacid were given to 46 cases(90.2%).

11. 36 cases(70.6%) were in favorable condition after proper treatment, but 2 cases (3.9%) were expired during admission, 4 cases(7.8%) showed esophageal stricture in spite of treatment, and 1 case(2.0%) showed pyloric stenosis.

12. Complications were observed in 8 cases (17.7%). Renal failure (4 cases), aspiration pneumonia (2 cases), upper G-I bleeding (1 cases), and diabetic coma (1 cases) were seen in order of frequency.

— 10 —

Clinical Study of Corrosive Esophagitis

Won Sang Lee, M.D., Sung Kyu Chang, M.D.,
Hong Shik Choi, M.D., Sang Ki Kim, M.D.,
Kwang Moon Kim, M.D., Won Pyo Hong,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With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and educational level of the people, there is an increasing awareness about the dangers of toxic substances and lethal drugs. In addition to the above, the governmental control of these substances has led to a progressive decrease in the accidents with corrosive substances. However there are still sporadic incidences of suicidal attempts with the substances due to the unbalance between the cultural development in society and individual emotion. The problem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re is a variety of corrosive agents easily available to the people due to the considerabl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Salzen(1920), Bokey(1924) were pioneers on the subject of the corrosive esophagitis and esophageal stenosis by dilatation me-

thod. Since then there had been a continuing improvement on the subject with researches on various acid(Pitkin, 1935, Carmody,1936) and alkali (Tree, 1942, Tucker, 1951) corrosive agents, and the use of steroid (Spain, 1950) and antibiotics. Recently, early esophagoscopy examination is emphasized on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way of the treatment in corrosive esophagitis patients. In order to find the effective treatment of such patients in future, the authors selected 96 corrosive esophagitis patients who were admitted and treated at the ENT department of Severance hospital from 1971 to March, 1981 to attempt a clinical study.

<Results>

1. Sex incidence.....male: female=1 : 1.7, Age incidence.....21-30 years age group; 38 cases(39.6%).

2. Suicidal attempt.....80 cases(83.3%), Accidental ingestion.....16 cases(16.7%). Among those who ingested the substance accidentally, children below ten years were most numerous with nine patients.

3. Incidence acetic acid.....41 cases(41.8%), lye...20 cases(20.4%), HCl.....17 cases (17.3%). There was a trend of rapid rise in the incidence of acidic corrosive agents especially acetic acid.

4. Lavage.....57 cases(81.1%).

5. Nasogastric tube insertion.....80 cases (83.3%), No insertion.....16 cases(16.7%), late admittance.....10 cases, failure...4 cases, other.....2 cases.

6. Tracheostomy.....17 cases(17.7%), respiratory problems(75.0%), mental problems (25.0%).

7. Early endoscopy.....11 cases(11.5%), within 48 hours.....6 cases(54.4%).

Endoscopic results;

moderate mucosal ulceration...8 cases(72.7%), mild mucosal erythema.....2 cases(18.2)

%), severe mucosal ulceration.....1 cases(9.1 %) and among those who took early endoscopic examination; 6 patients were confirmed mild lesion and so they were discharged after endoscopy. Average period of admittance in the cases of nasogastric tube insertion was 4 weeks.

8. Nasogastric tube indwelling period..... average 11.6 days, recently our treatment trend in the corrosive esophagitis patients with nasogastric tube indwelling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inding of early endoscopy.

9. The No. of patients who didn't given and delayed administration of steroid.....47 cases(48.9%):

causes; kind of drug(acid, unknown).....12 cases, late admittance.....11 cases, mild case ...9 cases, contraindication.....7 cases, other ...8 cases.

10. Management of stricture; bougienage7 cases, feeding gastrostomy.....6 cases, other surgical management.....4 cases.

11. Complication.....27 cases(28.1%); cardio-pulmonary.....10 cases, visceral rupture... ..8 cases, massive bleeding.....6 cases, renal failure.....4 cases, other... 2 cases, expire and moribund discharge...8 cases.

12. No. of follow-up case.....23 cases; esophageal stricture.....13 cases and site of stricture; hypopharynx.....1 case, mid third of esophagus...5 cases, upper third of esophagus ...3 cases, lower third of esophagus.....3 cases pylorus.....1 case, diffuse esophageal stenosis1 case.

— 11 —

A Clinical Study of Corrosive Esophagitis

**Chin Kyu Cho, M.D., Chang Il Cha, M.D.,
Joong Saeng Cho, M.D., Choon Gee Choi,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Authors observed clinically 34 cases of the corrosive esophagitis caused by various corrosive agents at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from Aug. 1978 to Dec. 1980.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Among the 34 patients, male was 19 (55.9%) and female 15(44.1%). Most frequently found age was 3rd decade.

2. 18 cases(52.9%) came to the hospital within 24 hours after ingestion of the agents, and 13 cases(38.2%) within 2 to 7 days.

3. Seasonal distribution showed most frequently in spring(35.3%).

4. The moment of the accident was suicidal attempt in 27 cases(79.4%) and misdrinking in 7 cases(20.6%).

5. Acetic acid was a most commonly used agent, showing 23 cases(67.6%), lye and insecticides were next in order.

6. Common chief complaints were swallowing difficulty and sore throat.

7. The average hospital days was 14.8 days.

8. Esophagogram was performed between 3 to 7 days after ingestion in 13 cases(38.2 %), findings were constrictions on the 1st narrowing portion in 4 cases(30.8%) and within normal limits in 3 cases(23.1%).

9. Esophagoscopy was performed in 31 cases(91.2%) between 2 to 7 days after ingestion, which revealed edema and coating on entrance of the esophagus in 9 cases(29.0 %). Diffuse edema on entire length of the esophagus and within normal limits were next in order.

10. Laboratory results were as follows: Anemia was in 1 cases(2.9%), leukocytosis in 21 cases(61.8%), increase ESR in 9 cases (26.5%), markedly increased BUN and creatinine in 3 cases(8.8%), and hypokalemia in 1 cases(2.9%). Proteinuria in 10 cases(29.4%);